

사회



이용자 없어 잠긴 문

무안군이 수역원의 예산을 투입, 매곡친환경농업지구에 설치한 미생물배양기·고속 발효액비시스템 시설물. 이용하는 농민이 거의 없어 문이 닫힌 날이 더 많다. /무안=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안군, 농민 요구·영농 규모 무시하더니...

수역짜리 시설 '무용지물'

친환경농업지구 4곳 조성 예산 낭비 논란

무안군이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 하면서 지역농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난 2008년 설치된 뒤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무안읍 매곡지구, 해제 산갈지구 등 4곳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지구별로 3억~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및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실제 농민들의 수요나 영농 규모를 감안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1억4000만원을 들여 설치된 미생물배양기와 고속발효액비시스템의 경우 연간 28만8000ℓ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나, 연간 미생물 예상 사용량은 매곡지구의 경우 1만4640ℓ, 해제 산갈지구는 1만6900ℓ 등 생산능력 대비 각각 5~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사업규모에서 예상 사용량을 근거해 추정된 것이며, 해당지구의 농민들이 실제로 미생물을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매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54)씨는 "미생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필요한 양도 소량에 불과하다"며 "무안군에 농산물 유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다른 시설들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을 투입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일부 지구의 경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무허가 골프연습장·20억 감리용역 감사 착수

행안부, '특혜' 집중 조사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의 무허가 골프연습장 설치·운영'(본보 4월16일자 7면), '무안군 20억 감리용역 특혜 의혹'(본보 4월20일자 12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무허가 골프연습장을 무상으로 지어준 A전기와 B건설의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수의계약 내역서와 상하

수도사업소 수의계약(2008년 1월1일~2010년 3월31일)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여부를 검토 중이다. 감사팀은 무안군 수의계약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와 담당 직원의 개입여부, 수의계약 과정상 문제점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무안군이 지난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친 단서조항을 붙여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행안부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무안경찰도 지역의 두 업체가 골프연습장을 무상으로 만들어준 배경과 직원 연수료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경남 건설업자 "검사 57명에 금품 향응 제공"

'검찰 X파일' 미풍일까 태풍일까

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20여년간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감사 57명의 'X파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월 초 부산지검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여년간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뇌물과 촌지,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해당 검사들을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그는 조사가 이뤄지면 검사들의 명단과 수표 번호, 향응 접대 장소와 일시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등 공식적 조치나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씨가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열거나 가졌는지도 변수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은 '정씨가 검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씨의 주장이 간단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게서 일부 검사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중도나

마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향응·접대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 혐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새로운 약재로 작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정씨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검찰 개혁' 요구로 이어져 조직 안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을 견제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멸종위기 동물 밀렵꾼 최고형 징역 5년~7년

환경부는 20일 상습 밀렵꾼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반달가슴곰, 산양, 늑대, 황새, 사향노루, 매, 수달, 두루미 등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으

로 강화된다. 고니와 독수리, 물개, 물범, 올빼미 등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연합뉴스

또 비...내일까지 최고40mm

어제 광주 26도 '롤러코스트 날씨'

21일 오후부터 이틀간 광주·전남 지역에는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이날 호남지역이 모두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으나, 21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비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한 것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된다. 비는 22일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라

낮 최고기온도 20일에 비해 5~7도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20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섭씨 26.1도까지 올라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5.6도 높은 것으로 시내 곳곳에는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또 순천이 광주와 같은 26.1도, 장흥 24.6도, 고흥 24.3도 등으로 광주 시와 전남 각 시·군이 평년기온보다 2도에서 5도 이상 높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주고 등 6곳 기숙형고교 모델학교

교과부, 12월까지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기숙형고교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68개교 가운데 나주고 등 6곳을 모델학교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숙형고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지역 등의 학교에 기숙사를 세워 현지 학생들이 도시 등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델 학교는 나주고(자기주도학습), 서천여고(입학사정관제에 대비

한 학교생활 관리), 김제여고(체력·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장호원고·충원고(학생 스포츠 활성화), 삼환고(동아리 활동)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개발하는 운영 모델을 전국적으로 150곳까지 늘릴 계획인 기숙형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형고교에 기숙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4분 달뜨기 11시 09분  
해질녘 19시 10분 달지기 00시 55분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 table below lists weather conditions and precipitation for major cities like Seoul, Busan, and Gwangju.

Table with 5 columns: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향사지수. It provides detailed weather and safety information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5 columns: (주)날씨, (목)날씨, (금)날씨, (토)날씨, (일)날씨, (월)날씨, (화)날씨. It shows a 7-day weather outlook with icons for each day.

A large advertisement for MiraeDO (미래에도) real estate. It features a modern apartment complex, a large '58' logo,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promoting their services.